



현역시절 최고의 재능을 자랑했던 김종부 감독(가운데)이 30년 전 스카우트 파동을 딛고 지도자로서 우뚝 섰다. K리그 챌린지 소속의 경남FC를 우승으로 이끌고 승격해 2018시즌 클래식에도 도전장을 내민다. 다만 외국인공격수 말캉(맨 오른쪽) 등 주축자들을 잡아야 한다는 과제가 눈앞에 놓여있다. 사진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스카우트 파동 30년…‘비운의 천재’ 김종부, 기적이 되다

〈경남FC 감독〉



최현길 전문기자의 스포츠 에세이

1983년 멕시코세계청소년 4강신화 주역 스카우트 파동에 1995년 선수생활 마감 이 악문 재가…2시즌만에 경남 승격 지휘 비운의 천재, ‘기적의 감독’으로 날갯짓

1987년의 한국축구는 흑역사로 기록되어 있다. ‘김종부 스카우트 파동’ 탓이다. 프로 원년인 1983년부터 1986년까지 아마추어와 프로팀이 섞여 자웅을 겨뤘던 한국프로축구는 1987년 프로축구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독립되면서 명실상부 프로구단들만의 리그가 됐다. 프로리그 중흥의 기대감이 한껏 높았던 시기였다. 그런데 시즌 말미에 예상치 못한 대형 사건이 터지면서 한국축구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1983년 멕시코세계청소년선수권 4강 신화의 주역 김종부의 인기는 당시 하늘을 찔렀다. 모든 걸 갖춘 대형 스트라이커로서 기대

를 한 몸에 받았다. 모든 구단이 탐을 낸 건 당연했다. 몸값도 치솟았다. 어느 팀을 택하느냐가 관심의 초점이었다. 처음 계약한 구단은 현대였다. 김종부는 고려대 4학년 때인 1986년 3월 파격적인 조건으로 사인했다. 하지만 채 한달도 되지 않아 현대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대우행을 선언했다. 이전투구의 시작이었다.

고려대 축구부에서 제명되는 등 사태는 일파만파였다. 1986년 멕시코월드컵 본선무대를 앞두고 일시 구제된 그는 불가리아전 동점골을 넣는 등 다시 한번 존재감을 과시했지만, 프로무대에서는 논란거리에 불과했다.

무자격의 김종부가 1987년 9월 18일 부산에서 열린 일본대표팀과의 친선전에 대우유니폼을 입고 교체 투입되면서 자격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대우가 11월에 김종부를 선수등록하자 현대는 팀 해체를 선언해버렸다. 프로리그의 존폐까지 걱정해야할 정도로 대 혼란에 빠졌다. 결국 대우가 김종부 포기를 선언하면서 파문은 일단락됐지만, 최순영 대한축구협회장이 물러나는 등 2년에 걸친 스카우트 파동은 한국축구를 사해에 얼룩지게 했다.

이 사건은 천재 스트라이커의 운명도 바꿔놓았다. 한창 뛰어아할 나이에 스카우트 싸움에 휘말린 가운데 1988년 포항 입단으로 프로에 데뷔했지만 이미 몸 상태는 4강 신화의 주역이 아니었다. 이후 대우~일화 등으로 전전하며 우여곡절을 겪었고, 1995시즌을 끝으로 선수 유니폼을 벗었다.

프로무대 8년 동안 81경기에서 단 6골을 기록했다. 골을 기록한 시즌도 2시즌(1989년 1골, 1990년 5골)에 불과했다. ‘비운의 천재’는 그렇게 팬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그는 지도자로 재기를 노렸다. 대우 시절 동독 출신 프랑크 엔겔 감독이나 헝가리 출신 베르탈란 비츠케이 감독 등과 생활하며 선진 축구를 경험했던 그는 축구 공부, 특히 지도자 공부에 관심이 많았다.

그렇다고 서두르지는 않았다. 저계급에서 감독생활을 시작한 뒤 동의대~충동고를 거치며 차근차근 경험을 쌓아갔다. 학원축구를 통해 후배들을 가르쳤고, 그 가르침을 통해 후배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다. 자신감이 생기자 성인 무대로 범위를 넓혔다. K3구단 양주시민축구단을 이끌었고,

2013년에는 화성FC의 사령탑을 맡았다. 밀바닥부터 쌓은 내공이 위력을 발휘하면서 2014년 K3 우승을 일궈냈다.

2016년, 드디어 기회가 왔다. K리그 챌린지(2부) 경남FC 감독으로 낙점 받으면서 20여년 만에 다시 프로 무대를 밟은 것이다.

김 감독은 훈련장에서 선수들과 속삭이를 하며 배수의 진을 쳤다. 전임 사장의 불미스러운 일로 첫 해 승점 10점 감점을 받고 시작했지만 리그 8위로 시즌을 마쳤다. 프로 감독으로서 감을 잡은 그는 욕심내지 않았다. 특히 선수들을 잘 다독였다. 힘들 때도 쉽게 흔들리지 않은 건 잘 형성된 팀 분위기 덕분이었다. 기본에 충실한 훈련과 선수의 능력에 맞춘 전술을 통해 탄탄한 조직력의 팀으로 거듭났다.

그의 리더십은 2시즌 만에 빛을 발했다. 2017시즌 전반기에 18연속 무패 대기록(12승6무)을 세우는 등 상승장구했고, 10월14일 서울 이랜드와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남은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강등 3년 만에 클래식(1부)으로 승격이 확정됐다.

그는 “아마추어 시절에는 선수들을 가르친

다는 생각이 앞섰다면, 프로선수들은 기본이 갖춰진 선수들이었다. 골격을 갖춘 채 그들을 믿고 기다려준 것이 이렇게 큰 선물이 되어 돌아왔다”며 기다림의 보람을 강조했다.

우승에도 불구하고 김 감독은 선수단 행가를 고사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 경쟁했던 고(故) 조진호 부산 감독을 떠올렸던 것이다. 그는 “마음으로는 같이 울고 싶다. 나도 똑같이 압박감을 갖고 왔다”며 속내를 전했다. 또 모친상을 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도자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김 감독은 심호흡을 하며 또 다른 비상을 꿈꾸고 있다. “아마추어 감독시절에는 프로팀 감독되는 것이 로망이었다. 그런데 이제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올라갔다. 클래식에서도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는 게 목표다”고 했다. 대학시절 스카우트 파동으로 2년이나 경기를 못 뛰는 등 아픔을 겪었지만 그런 고통스러운 나날들조차 지금의 결실을 맺게 해준 자양분이었다는 ‘비운의 천재’ 김종부. 그가 클래식 무대에서 무엇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choihg2@donga.com

말캉 몸값 30억원부터? 중·일 5개팀 러브콜

〈경남FC〉

“K리그에선 감당할 구단 없을 듯”

‘KEB하나은행 K리그 챌린지 2017’은 경남FC를 위한 무대였다.

경남은 18경기 무패(12승6무)를 기록하는 등 시즌 개막부터 독주체제를 유지해온 끝에

10월 14일 서울 이랜드FC와의 34라운드 홈경기에서 2-1로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73(2승7무5패)을 기록해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했다.

이번 우승으로 경남은 2018년을 K리그 클래식(1부리그)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자격을 얻

었다. 경남의 독주에는 외국인 스트라이커 말캉(23)의 활약을 빼놓을 수 없다. 말캉은 올 시즌 32경기에 출전해 22골·3도움을 기록하면서 경남의 독주에 큰 공을 세웠다.

경남이 이번 시즌에 기록한 65골 가운데 34% 가량을 책임졌다. 챌린지 득점왕은 때론 당상이다. 2위 라울(안산·14골)과는 8골 차다. 처음 경남 유니폼을 입었을 때만해도 키 크고 체격 좋은 브라질 축구선수 정도라면 여

겨졌다. 해외무대 경력도 없었던 무명 선수였지만, 이제는 귀한 몸이 됐다.

말캉은 시즌 중반부터 국내 구단은 물론이고 중국 슈퍼리그, 일본 J리그 등 아시아권 클럽의 러브콜을 받아왔다. 여름에도 이적이 가능했지만, 자신의 첫 해외 프로생활 팀인 경남에 애정을 보여주며 잔류했다.

말캉의 가치는 시즌이 거듭되면서 더욱 높아졌다. 클래식의 한 구단 관계자는 “몸값이

엄청 올라갔다. 중국과 일본에서 5개 구단이 영입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데려오려면 3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K리그 클래식에서는 몸값을 감당할 만한 구단이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말캉은 8일 부산아이파크와의 경기에서 무릎 부상을 당해 잔여경기 출전이 불가능하다. 우승이 확정된 경남은 말캉 없이 시즌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프로 좌절한 99%에 새 기회…‘에이스웨이’를 아시나요?

한국인 스타프에 관심 높은 J리그 지도자·전력분석 등 日 진출 지원

영국 스포츠 중계권업체 퍼프는 2017년 일본 J리그에 연간 2500억, 10년간 2조5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살림살이에 송풍이 트인 J리그는 아시아권에서 1장에서 2장으로 확대해 해외진출을 노리는 한국 선수들에게 길을 열어줬다.

독일을 롤 모델로 삼은 J리그는 선진 시스템을 구축했다. 1부 22개, 2부 18개, 3부 16개 팀이 활발히 운영 중이다. 실업축구 JFL에도 16팀이 있다. 여기에 여자, 사회인리그(국내 K3 개념)까지 더하면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그렇다고 선수들에게만 일본 진출의 기회가 열린 것은 아니다. J리그 베갈타 센다이에

김영삼 스카우트, 감바 오사카에서 이창엽 전력코치가 활동 중이다. 이렇듯 J리그는 한국인 스타프에도 관심이 높다.

J리그 72개 팀에 몸담은 한국인은 2명이지만 향후 언젠가 확대될 수 있다.

일본 아마추어 축구도 대단하다. 대학팀만 400개다. 우리의 82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팀당 평균 보유선수도 150명이나 된다(한국은 30여명). 전국·지역대회는 물론이고 학년별 리그도 있어 모든 재학생들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또 A~D레벨로 나뉜 실력별로 관리한다. 한국은 철저히 고학년이 위주다. 저학년은 1·2학년 토너먼트를 제외하면 딱히 자리가 없다. 진로설계도 흥미롭다. 지도자, 전력분석, 피지컬 등 다양한 교육에 더해 자격증 취득까지 돕는다. 선수로 성공하지 못해도 축구계에 몸담으며 제2의 인생을 살아

갈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국내 18세 이하(상우고), 22세 이하(서울대 지필대하) 클럽을 운영하는 에이스웨이(Aceway)는 일본 오사카에 연고를 둔 ‘Aceway Japan’을 설립, 선수~지도자~제2의 축구인 육성을 시작했다. 한국 선수를 J리그에 진출시킨 김과 동시에 일본어 과정보수와 일본대학에 진학시켜 다양한 진로를 개척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고교졸업자를 주 대상으로 1년간 훈련과 어학을 병행한 뒤 프로 진입에 실패한 선수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에이스웨이 남기무 대표는 “국내 선수가 프로에 입단할 확률은 1%에 불과하다. 나머지 99%에도 축구를 비롯한 다양한 길을 열어줘야 한다. 선수로 성공하지 못해도 지도자로 두드러진 족적을 남기는 열린 환경도 필요하다”고 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차범근 전 감독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역대 최고 아시아선수”…축구인 첫 수상

차범근(64) 전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이 ‘2017 대한민국 스포츠영웅’에 선정됐다. 대한체육회는 10월 16일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했고, 역대 최고의 아시아 선수로 평가받는 차범근 전 감독을 올해의 현역자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축구인 출신이 이 상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범근 전 감독은 11월 29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현역사에서 대한민국 체육 ‘명예의 전당’에 오른다. 1978년부터 1989년까지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며 통산 308경기에 출전, 98골을 넣은 차 전 감독은 2차례 UEFA컵(현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한국 축구를 상징하던 그는 대표팀에서의 활약도 대단했다. A매치 최다출장(136경기)과 최다 골(59골)을 기록해 한국축구의 레전드가 됐다. 현역 은퇴 후에는 국가대표팀과 울산현대~



차범근 전 감독

수원삼성 등 K리그 클럽을 지휘하며 인상적인 족적을 남겼다. 이후 자비를 들어가며 유소년 선수 육성에 앞장서고 스포츠 행정가로서 그라운드와 인연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열린 ‘국제축구 연맹(FIFA) U-20 월드컵 코리아’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큰 역할을 했다.

체육회는 7월부터 일반국민, 주요 체육단체, 기자단 등 70명을 대상으로 70명의 후보를 추천받아 이 가운데 7명을 최종 후보로 추렸다. 9월부터 7명 최종후보군을 대상으로 국민지지도 평가(50%), 선정위원회 평가(50%) 결과를 합산해 1975년 체육훈장 기린장과 1979년 체육훈장 백마장을 받았던 차범근 전 감독을 올해의 주인공으로 뽑았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